

# '해경 해체'로 수험 준비생들 '멘붕'

## 광주·전남 해양경찰학과 학생들 충격 속

### 채용시험 연기 하루만에 예정대로 실시 공고

'해양경찰 해체' 소식 발표 후 하루가 지난 20일, 해양경찰학과 학생과 해양경찰공무원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일제히 '멘붕(멘탈붕괴)' 상태에 빠졌다. 전남 해경 채용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속개된다는 공고가 떠 수험생들은 하루사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해양경찰청은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사흘 간 2차 전형형을 지르기로 했으나 '해경 해체' 방침에 따라 19일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었다. 그

러나 해경은 불과 하루 만에 전형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해경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치러지는 합형응용·항공전탐 분야 실기시험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밝힌 것이다.

전날 오후 문자 메시지로 "해경 채용일정 무기한 연기"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1차 전형 합격자는 물론 짝배는 몇달부터 많게는 3년 이상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해경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불만을 쏟아냈다. 채용 전형 무기한 연기

라는 해경의 방침이 수험생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해양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카페 게시판에는 하루 사이 수백건의 항의글과 함께 수천건의 댓글로 도배됐다.

"결과가 어찌됐건, 빨리 일정이 나와야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대책이라도 마련할 텐데, 아무런 소식도 없으니..."라는 글이 20일 오후 2시에 올라오자 수 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댓글을 쓴 수험생들은 "목목히 술담배 잡고 체력훈련 해온게 몇년인데, 순식간에 목표를 앗아가버리니..."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예정대로 채용 전형을 진행한다"는 글이 카페에 공지되자 30분만에 수험생 910명이 글을 읽고 "그래도 다행"이라는

댓글 등을 달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해양경찰학과가 개설된 대학들은 당장 학과 명칭은 물론 개설 강의 수정이 불가피해 혼란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목포해양대학교 등 대학교 2곳과 조선이공대학에 해양경찰학과가 개설돼 있다.

전남대학교 최명수 교수(해양경찰학과)는 "처음 (해경해체) 소식을 듣고 저 뿐만 아니라 학생들 모두 깜짝놀랐다. 하지만, 해경이 맡고 있던 업무는 국가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채용전형(수험과목)과 일정은 물론 인원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몰림 00:26  
해질 19:34    달림 11:52

### 절기 '소만'

맑은 가운데 기온 크게 오르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4/26	보성	맑음	13/27
목포	맑음	15/22	순천	맑음	15/29
여수	맑음	17/26	영광	맑음	12/24
나주	맑음	11/26	진도	맑음	13/23
완도	맑음	14/26	전주	맑음	13/26
구례	맑음	11/28	군산	맑음	12/25
강진	맑음	12/26	남원	맑음	11/26
해남	맑음	12/24	흑산도	맑음	14/20
장흥	맑음	11/26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서~북	0.5	서~북서	0.5
	남부	북서~북	0.5~1.0	서~북서	0.5
남해	남부	북서~북	0.5	서~북서	0.5
	남부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 ◇물때

목포	물몰		물올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07:11	12:25	19:29	00:36
	01:50	08:12	14:19	20:13

### ◇주간 날씨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	☀	☀	☁	☁	☀	☀
14/29	14/30	14/29	17/23	18/25	16/26	15/27

### ◇생활지수

식중독	30
운동	60
빨래	70



35일째의 '외침'

세월호 침몰 사고 35일째인 20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실종자, 희생자, 생존자 가족 등이 기자회견을 한 뒤 바다를 향해 '보고싶어요, 집에 가자' 등을 목놓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17명 모두 구조할 때까지 응원해달라"

###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대통령 담화 유감 표명

세월호 참사 관련 가족대책위원회가 현재 실종자로 남아 있는 17명을 모두 구조할 때까지 민간군 합동구조팀과 해경을 응원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또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실종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라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0일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대국민 호소

문' 형식으로 발표하고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17명의 실종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다"며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걸을 떠난 실종자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zpark@

## 세월호 선원들 내달 10일 첫 재판

### 광주지법 공판 기일 확정...이준석 선장 등 15명 집중심리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월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이 필수적 요건이 아니지만 범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이 선장 등의 법정 출석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 선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사건 쟁점을 파악·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에 따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로, 효율적·집중적 심리를 위한 쟁점 정리, 증거 선정,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 등 공판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재판부

가 사안에 따라 결정하며 개최 횟수는 제한이 없다.

광주지법은 국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인 점을 감안,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당일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하는 한편, 201호 법정 외 1개 법정을 보조 법정으로 활용해 모니터로 재판실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방청권은 특정 좌석을 사전에 교부하는 임의 배정,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당일 교부하는 추첨 배정으로 배부된다.

광주지법은 또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지법은 앞서 중요 사건으로 분류, 법관 1명을 늘리기도 했다.

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희망하면 화상증언, 증언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경기경찰청장 '유족 사찰' 사과

### 단원경찰서장도 사과

최동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일 0시 10분께 안산 화랑유원지 내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아 정보형사들의 사찰 의혹에 대해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했다. 최 청장은 "앞으로 사건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복경찰(정보형사)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것이지 불이익을 주려한 것은

아니어서 사찰이나 미행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산단원경찰서 구경회 서장도 6차례 고개를 숙여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안산단원서 소속 정보형사 2명은 전날 오후 7시 21분께 전남 진도에 회의차 내려가는 피해 가족대표단이 전북 고창군 한 휴게소에 저녁식사를 하러 들른 사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들을 알아본 한 유족에게 적발됐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결혼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출입, 전주고등학교출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현) (063) 275-7766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숲속의 상쾌함을 느껴보세요!**

✓ 이지골드코트는 모든 건물에 적용이 가능한 내·외장 불연단열 마감재로서 한번 시공으로 **단열, 악취제거, 결로방지, 원적외선 방출, 음이온 방출, 항균, 항곰팡이, 아토피 방지, 세집중후군 방지** 등의 기능성 친환경 특허 자재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 여러분께 숲 속에서 주무시는 것과 같은 상쾌함을 약속합니다.

건물 외벽 시공    내부 인테리어 시공    결로방지 시공    축사(돈사,계사) 태양복사열방지 및 불연 시공

적용장소 : 아파트, 주택 등 실내 및 발코니의 단열 및 결로방지 / 지하주차장 벽체 결로방지 / 지하노래방 습기 차단 및 탈취기능 공장 및 축사지붕 태양복사열방지 및 불연 / 노후된 건물의 내외벽 리모델링 /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41-634-9909 / T. 010-7514-3266**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안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